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노동공평성 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적 영향력

Interactive Effects of Wives' and Husbands' Gender Ideologies on the Couples' Household Work Time and Perceptions of the Fairness of Household Work

대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차 성 란

Dept. of Home Management, Taejon Univ.
Assisant Professor : Cha, Sung Ran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결과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nteractive effects of gender ideologies on the amount of household work time and the perception of fairness in household work by the coupl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00 couples in Seoul and 142 in Taej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Interactive effects of gender ideologies had an important role in explaining household work time and the perception of fairness by husbands. For men holding more egalitarian gender ideologies who were married to women being more egalitarian tend to perform more hours of household work. And husbands who had traditional gender ideologies percept relatively fair to the couples' division of household work. It was approved that wives had a primary role in the division of household work.

I. 서 론

부부간 가사노동분담의 불균형에 대해 있어 왔던 그간의 논의는 전업주부는 물론, 취업주부의 남편 역시 여성적 역할로 규정되어 있는 가사노동을 거의 분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과중한 노동부담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여성의 복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부정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성들은 가사노동을 거의 전담하여 매일 긴 시간동안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을 불공평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Sanchez & Kane, 1996).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를 들자면 여성들은 가사노동을 당연히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노동으로 여기고 있으며 남성

들의 낮은 가사노동참여 상태를 부적절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가사노동 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여성들의 가치관이 근대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인식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여성들의 가치관이 변치 않는다고 해도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여성이 전담하는 것보다는 가족원들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개선의 방향이 될 것이다.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수요가능성가설, 성역할태도 가설, 가족생활주기 가설, 자원 가설 등의 설명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원간의 분담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여러 가설 중 부인과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가사노동분담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부인의 성역할태도, 남편의 성역할태도 각각이 가사노동분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특히 영향력을 지닌다는 연구(최수선, 1995; Huber & Spitze, 1983; Baxter, 1992)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연구에서는 부인의 성역할태도도 영향력을 갖는 것(홍윤정, 1996)으로 나타난다. 또 일부의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영역별로 여성중심적 노동, 남성중심적 노동, 양성적 노동 등에 따라 성역할태도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허경옥, 1997). 이러한 연구상황에서 Greenstein(1996b)은 부부 각각의 성역할태도만으로는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을 예측하는데 충분치 않으며 부인의 성역할태도와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상호작용적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지녔다고 해서 과연 가정내 가사노동분담이 좀 더 잘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부부의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적 영향력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이나 부부의 가사노동 공평성인지 및 전체 노동 공평성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배경

1.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는 '전통적으로 성과 연결되어 있는 결혼 및 가족의 역할과 관련하여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관한 것이다(Goffman, 1977). 한편 성정체성은 성역할태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심오한 의미"(Goffman, 1977)이며 남성 또는 여성과 같은 자기정의라 할 수 있다.

가사노동은 성에 따라 구분되어 행해지는 대표적인 활동으로서 특히 합법적인 결혼관계나 유사한 결혼관계에서 두드러진다(South & Spitze, 1994). 즉 결혼은 부인과 남편이 남성과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역할태도가 작용하게 되는 장으로 기능하는 것이다(Greenstein, 1996b). 이러한 두 개념 사이의 관계는 결혼에서 부부가 자신의 역할과 관련하여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자신의 특유한 방법으로 이해하는데 따라 생기는 것이다(Sanchez & Kane, 1996).

2. 가사노동 공평성

대부분의 부인들이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극소수의 부인들만이 이러한 가사노동분담을 불공평한 것으로 느낀다(Benin & Agostinelli, 1988). 이는 어떤 결과가 비교기준(다른 사람, 집단, 과거의 경험, 자신의 기대)과 비슷할 때 공평하게 느끼며, 반대로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할 때 객관적으로는 전혀 부족하지 않을지라도 상대적으로 박탈당한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다(Crosby, 1976).

Major(1987)에 따르면 공평성의 지각은 결과되는 가치, 비교기준, 정당화 등의 3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성역할태도는 이 세가지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부인은 결혼관계에서 안정

성과 조화에 가치를 두지만 평등한 부인은 독립성과 자율성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둘째, 부인들은 비교기준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전통적인 부인은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기대를 자신의 과거경험에 기준을 두거나, 자신의 자매나 어머니에게 기준을 둘 수 있다. 다른 부인들이 보상받는다 고 지각하는 것에 따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경제적으로나 이상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여성의 준거집단에 대한 기대를 기준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Greenstein, 1996a). 셋째, 어떤 결과를 적절한 또는 정당한 과정의 결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사노동분담의 불균형에 반응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만약 어떤 부인이 자신이 취업했다 하더라도 남편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많은 가사노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가사노동의 불균형을 적절한 과정에서 나온 결과로 생각할 것이다(Greenstein, 1996a). 특히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부인, 그리고 쉽게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부인은 자신이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사노동의 불균형을 마땅한 것으로 믿는다고 한다(Crosby, 1982; Kanter, 1977).

즉, 성역할태도는 가사노동분담에서의 불공평성을 투시해보는 일종의 렌즈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며, 렌즈의 성격에 따라 불공평성이 부당하게 또는 정당한 것으로 지각될 수 있으므로 성역할태도는 가사노동시간의 불균형이 불공평성으로 여기게 되는 과정에서 중재변수로 기능한다(Greenstein, 1996a)

그러나 상대적 박탈 이론이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Sanchez와 Kane(1996)에 따르면 남성들은 가사노동분담에 있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가사노동 공평성 지각에 더 높은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이들은 여성중심적 가사노동의 분담률이 가사노동 공평성에 중요하며, 매일, 강압적(demanding),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이 가사노동 공평성 결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시간

성역할태도가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일반적인 가정이 있다. 즉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부부는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부부에 비해 좀 더 가사노동시간을 균형있게 분담한다는 것이다(Presser, 1994; Sanchez, 1994).

그러나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구마다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Baxter(1992), Perry-Jenkins와 Crouter(1990)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가사노동분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측변인이라고 한 반면, Hardesty와 Bokemeier(1989)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가사노동을 잘 설명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Greenstein(1996a)의 연구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적 효과가 가사노동을 잘 설명한다고 하였다.

부인과 남편의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이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다룬 연구로서 Hochschild(1989a; 1989b)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여성의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은 남편의 부인에 대한 그리고 부인의 남편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것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reenstein(1996b)은 맞벌이 가정에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부인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남편이라면 부인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것에 대해 여성에게 당연히 부여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지만 좀 더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남편이라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부인에게 감사함을 느낄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다.

성역할태도가 가사노동에 미치는 상호작용적 영향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부인과 결혼한 전통적인 남편은 가사노동을 가장 적게 할 것이며,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전통적이고 부인은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경우, 부인은 가사노동 서비스를 사회화하거나 가사노동을 하지 않으므로써 가사노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나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반면,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이며 자신의 성역할태도는 전통적인 부인은 남편이 가사노동을 하도록 놓아두지 않으므로써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낮을 것이며, 부인과 남편 모두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경우, 그 남편은 가사노동의 수행이 자신의 성역할태도와 일치하므로 가장 많은 가사노동참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Greenstein, 1996b).

국내연구로는 부부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적 효과에 대해 다룬 것이 없다. 부부 각자의 성역할태도가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미환(1996)의 연구는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취업부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홍윤정(1996)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성역할태도만이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부부 중 누구의 성역할태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권혜연(1996)의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주기의 어느 단계에서도 부인과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각기 다른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4.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 공정성

가사노동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Sanchez와 Kane(1996)의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남편보다는 부인이 더 불공평성 지각 수준이 높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남편과 부인들이 가사노동이 공평하다고 응답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성역할태도를 가사노동 공정성의 영향변인으로 다루어왔으나 상호작용적 효과(Bielby & Bielby, 1992; John, Shelton & Luschen, 1995)보다는, 부부 각자의 성역할태도의 영향력에 대해 다루고 있다(Blair & Johnson, 1992; Pina & Bengtson, 1993).

Greenstein(1996a)의 연구에 의하면 가사노동시간의 불균형을 불공평성으로 지각하는 것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부인보다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지닌 부인의 경우 더 높은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

다. DeMaris와 Longmore(1996)의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가 부인의 인적자본보다 가사노동 공정성을 더 잘 설명해주며, 좀 더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지닌 남편은 부인의 가사노동량이 자신에 비해 불공평하게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anchez와 Kane(1996)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부인은 자신의 가사노동량을 공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부인은 자신의 가사노동량을 공정하게 인지하리라는 일반적 기대와 어긋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들과는 달리 Blair와 Johnson(1992)의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가 부인의 가사노동 공정성 지각을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I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부부의 성역할태도는 어떤 유형을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부부 성역할태도 상호작용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부부 성역할태도 상호작용이 부부의 가사노동 공정성 인지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측정도구

성역할태도 척도는 홍윤정(1996), DeMaris와 Longmore(1996)의 연구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특히 DeMaris와 Longmore(1996)의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를 성역할태도의 근대성과 가사노동 균분에 대한 2개의 척도로 구분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 척도 중 성역할태도의 전통-근대성이 가사노동분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가사노동분담에 대해 묻는 문항은 제외시켰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정말 그렇다'의 5점까지로 측정하였다.

가사노동 공평성에 대한 인지 척도는 홍윤정(1996)의 연구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했으며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부인과 남편이 가사노동시간을 분담하는 것이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부인과 남편 각자에게 질문하였다. 또한 부부 각자의 가사노동시간과 시장노동시간을 합한 전체 노동시간 분담에 대해 부인과 남편은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두 문항의 응답척도는 '매우 불공평하다'의 1점에서 '매우 공평하다'의 5점으로 조사하였다.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과 일요일 양일간 식사준비 및 뒷처리, 집안청소, 세탁 및 수선, 상품구매 및 가계부기록, 자동차 수리 및 정원관리, 자녀돌보기에 관한 11개 문항에 사용한 시간으로 조사하였다.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가사노동시간 \times 6 + 일요일 가사노동시간)/7 로 계산하였다. 조력시간은 유급의 파출부, 친정부모나 시부모, 남편을 제외한 기타 가족원으로부터 가사노동을 도움받는 시간으로 조사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부인과 남편의 연령, 막내 자녀연령, 자녀수, 부인과 남편의 교육수준, 부인과 남편의 직업을 조사하였으며, 소득은 부인이 취업한 경우 부인의 근로소득을 응답받았고, 남편의 소득은 남편의 근로소득과 기타 이자소득, 집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하였다¹⁾.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와 대전시에 거주하는 부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97년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동안 서울과 대전에 각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서울의 100부, 대전의 14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역할태도,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 공평성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해

평균,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의 분석을 위해 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결과분석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부인이 39.42세, 남편이 42.23세였으며 교육수준은 부인이 13.55년, 남편이 14.89년이었다. 주부의 취업여부는 전업주부가 62.0%, 취업주부가 38.0%였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직, 기술직이 가장 높아 36.9%였으며 전문직,관리직이 34.4%, 자영업자가 17.9%, 피고용기능공이 10.8%로 나타나 남편의 직업적 지위분포가 비교적 높은 쪽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였다. 남편의 근로소득은 223.65만원이었으며 부인의 근로소득 45.79만원, 기타소득 24.67만원을 합하면 평균 가계소득은 294.11만원이었다.

성역할태도는 부인의 경우 응답가능범위 12 - 60점의 중앙값인 36점보다 낮아 다소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남편의 경우 중앙값보다 5점 이상 높게 나타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의 경우 부인이 550.45분이었으며 휴일에는 640.87분으로 평일보다 휴일 가사노동시간이 길었다.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103.37분이었고 휴일 가사노동시간은 276.12분이었다. 권혜연(1996), 홍윤정(1996)의 연구에서 남편의 하루평균 가사노동시간이 1시간 30분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다소 길게 나타났다. 또한 남편들은 휴일가사노동시간이 평일 가사노동시간의 약 2.7배 정도에

1) 아직 일반적인 통념이 가정의 재산 중 부인의 기여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도 부인의 몫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정영금, 1993 참고). 이자소득이나 집세와 같은 소득은 남편의 몫으로 간주되는 동산,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이것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남편이 소유한 자원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42)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구통계적 변수				
주부연령(세)	39.42	9.24	22.00	57.00
남편연령(세)	42.23	9.34	28.00	61.00
자녀 수(명)	1.72	1.00	0.00	5.00
막내자녀연령				
취학전		83 (38.5%)		
초등학교		46 (19.0%)		
중고등학교		57 (23.6%)		
대학이상		46 (18.9%)		
주부의 교육(년)	13.55	2.73	6.00	18.00
남편의 교육(년)	14.89	2.58	6.00	18.00
주부취업				
전업주부		150 (62.0%)		
취업주부		92 (38.0%)		
남편직업				
피고용기능공		26 (10.8%)		
자영업		43 (17.9%)		
사무, 기술직		89 (36.9%)		
전문, 관리직		83 (34.4%)		
부인의 근로소득(만원)	45.79	79.50	0	500.00
남편의 근로소득(만원)	223.65	107.02	0	800.00
기타소득 (만원)	24.67	73.94	0	700.00
부인의 근무시간(분)	218.36	297.78	0	1009.00
남편의 근무시간(분)	608.13	126.46	0	1080.00
조력시간(분)	80.50	166.25	0	960.00
성역할태도변수				
부인의 성역할태도	34.07	7.72	13.00	54.00
남편의 성역할태도	41.75	6.25	23.00	57.00
가사노동시간				
부인평일가사시간(분)	550.45	271.68	30.00	1440.00
부인휴일가사시간(분)	640.87	308.78	0	1590.00
남편평일가사시간(분)	103.37	120.17	0	780.00
남편휴일가사시간(분)	276.12	222.80	0	1320.00
공평성 인지도				
부인의 가사노동공평성	2.98	0.77	1	5.00
부인의 전체노동공평성	3.02	0.75	1	5.00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3.33	0.72	1	5.00
남편의 전체노동공평성	3.33	0.67	1	5.00

이르고 있어 가사노동이 휴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부인과 남편이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 부인이 인지하는 가사노동 공평성은 2.98로 중앙값 2.5보다 높게 나타나 비교적 현재의 가사노동 분담상태를 공평한 것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사노동 이외에 부부의 시장노동시간까지를 고려한 상태에서 부인이 인지하는 전체노동 공평성은 3.02로 가사노동 공평성보다 다소 높아, 시장노동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부인은 부부의 전체적인 노동 시간분담을 좀 더 공평한 것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가사노동분담 상태에 대해 남편이 인지하는 가사노동 공평성은 3.33이었으며 부부의 시장노동까지를 고려한 전체 노동시간에 대한 공평성 역시 3.33으로 남편의 경우 가사노동 공평성과 전체노동 공평성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남편의 가사노동 및 전체노동 공평성 인지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인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분담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2. 부부의 성역할태도

부부의 성역할태도의 응답가능범위를 3등분하여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 중간, 근대적인 경우로 나누고 부인의 성역할태도 역시 전통적, 중간, 근대적인 경우로 나누어 가능한 조합의 빈도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인은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으나 남편은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가장 많아 42.98%였으며, 다음으로는 남편과 부인 모두 전통적인 경우가 34.71%이었다. 남편과 부인 모두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지니는 경우는 13.64%이었으며 부인이 중간적인 태도를 지니는데 남편은 전통적인 경우가 3.31%, 부인이 전통적이며 남편은 중간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0.41%, 부인은 근대적이나 남편은 중간적인 경우가 2.07%, 남편은 근대적이나 부인은 중간적인 경우가 1.23%, 그리고 남편과 부인 모두 중간적 태도를 지니는 경우는 단 한 사례도 나타나지 않아 중간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는 경우의 빈도수가 대체적으로 적었다. 남편은 근대적이나 부인은 전통적인 경우 역시 1.65%

로 매우 적었는데 이는 남편들이 남성위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의 이익과 반하는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지닐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부부의 성역할태도 상호작용과 가사노동시간

부부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이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단계의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우선 1단계의 회귀모델에서는 부인의 성역할태도와 남편의 성역할태도 각각의 변인만을 포함시켰으며, 다음으로 부부의 성역할태도 상호작용 변인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중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이 문제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vif 값을 산출한 결과 부인의 취업여부와 부인의 근무시간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어 부인의 근무시간은 중회귀분석식에서 제외시켰다.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1단계의 회귀식과 2단계의 회귀식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2단계 회귀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는 부인의 성역할태도 변인과 남편의 성역할태도 변인 모두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부인 성역할태도와 남편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 변인 역시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인은 자신의 성역할태도나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관계없이 가정에서 가사노동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가사노동은 여성에게 있어 개인의 태도와 관계없이 규정되는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인의 취업여부는 의·식·주 영역의 가사노동시간, 구매 영역, 자동차 및 정원관리 영역, 자녀돌보기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돌보기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인의 전체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표 2> 부부의 성역할태도 유형 빈도(백분율)

남편 \ 부인	근대적	중 간	전통적
전 통 적	4 (1.65)	1 (0.41)	84 (34.71)
중 간	3 (1.23)	0 (0.00)	8 (3.31)
근 대 적	33 (13.64)	5 (2.07)	104 (42.98)

〈표 3〉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인	부인 의 가사노동시간									
	전체 β	의,식,주 β	구매 β	자동차 β	자녀돌보기 β	전체 β	의,식,주 β	구매 β	자동차 β	자녀돌보기 β
자녀수	0.24**	0.15	0.00	-0.07	0.24**	0.24**	0.15	0.00	-0.07	0.24**
부인연령	-0.35***	-0.04	0.04	0.08	-0.46***	-0.35***	-0.03	0.04	0.08	-0.46***
부인교육	0.05	-0.02	-0.13	0.03	0.10	0.05	-0.02	-0.14	0.03	0.10
남편교육	-0.10	0.03	0.13	-0.15	-0.17	-0.11	0.03	0.13	-0.15	-0.17
부인취업	-0.38***	-0.27**	-0.38***	-0.21*	-0.20*	-0.38***	-0.27**	-0.38***	-0.21	-0.20*
남편직업	0.05	0.00	-0.01	0.01	0.06	0.04	0.00	-0.01	0.01	0.06
부인소득	-0.05	-0.06	0.08	0.07	-0.06	-0.05	-0.06	0.07	0.07	-0.06
남편소득	-0.08	-0.05	-0.01	-0.00	-0.07	-0.08	-0.05	-0.01	0.00	-0.07
남편근무	0.07	0.02	0.09	0.15*	0.03	0.07	0.02	0.09	0.15*	0.03
조력시간	0.06	-0.07	0.13*	0.16*	0.06	0.06	-0.08	0.12	0.17*	0.06
부인성역할	0.00	-0.02	0.03	0.06	-0.01	0.05	-0.21	-0.20	0.23	0.21
남편성역할	-0.07	0.00	0.00	-0.04	-0.08	-0.04	-0.12	-0.14	0.06	0.05
부인*남편성역할						-0.07	0.28	0.33	-0.24	-0.31
F값	6.64**	3.15***	2.79***	1.82***	5.30***	6.11***	2.91***	2.59**	1.68	4.90***
설명력	26.25	14.44	13.00	8.87	22.11	26.25	14.51	13.11	8.93	22.20

* p<.05, ** p<.01, *** p<.001

미치는 변인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돌보기는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사노동 영역임을 말해주고 있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부부 각자의 성역할태도만을 포함시킨 1단계 회귀식에서는 가사노동 전 영역에서 부인의 성역할과 남편의 성역할 어느 것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 변인을 포함시킨 2단계 회귀식에서는 남편의 전체 가사노동시간이 부인의 성역할태도와 부부의 성역할태도 상호작용항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구매 및 경영 영역에서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매 및 경영 영역에 사용하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과, 남편의 전체적인 가사노동시간은 부부의 성역할태도 상호작용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에서 부부 성역할태도 상호작용 변인이 회귀식에 포함되었을 때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던 부인

의 성역할태도 변인과 상호작용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부부 성역할태도 상호작용 변인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부인의 성역할태도 변인의 회귀계수가 정(+)의 방향을 나타낸 것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부인의 성역할태도 변인은 부부의 성역할태도 상호작용 변인에도 포함되게 되어 정(+)의 부호를 그대로 해석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상호작용 변인을 중심으로 결과가 해석되어야 한다.

부부 성역할태도 상호작용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례수가 극히 적은 유형은 분석자료에서 제외시키고 부부 모두 근대적인 경우, 부부 모두 전통적인 경우, 부인은 전통적이고 남편은 근대적인 경우의 자료를 기초로 다음의 〈표 5〉를 제시하였다. 부부 성역할태도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부부가 모두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경우가

〈표 4〉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전체	의,식,주	구매	자동차	자녀돌보기	전체	의,식,주	구매	자동차	자녀돌보기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자녀수	0.10	-0.12	0.08	0.08	0.26**	0.10	-0.12	0.08	0.08	0.26**
부인연령	-0.21**	-0.01	-0.20*	-0.02	-0.33***	-0.23**	-0.02	-0.21*	-0.04	-0.34***
부인교육	-0.03	-0.11	-0.02	-0.16	0.16	-0.01	-0.10	0.00	-0.13	0.18
남편교육	-0.25*	-0.04	-0.26*	-0.10	-0.30**	-0.27**	-0.05	-0.28**	-0.12	-0.32**
부인취업	-0.21*	-0.29**	0.06	-0.17	-0.08	-0.21*	-0.29**	0.06	-0.17	-0.08
남편직업	0.07	-0.37	0.11	0.07	0.08	0.08	-0.03	0.12	0.07	0.09
부인소득	0.03	0.28**	-0.12	0.02	-0.07	0.07	0.27**	-0.12	0.02	-0.07
남편소득	-0.04	-0.03	-0.04	0.02	-0.06	-0.04	-0.03	-0.04	0.03	-0.05
남편근무	0.03	0.01	0.01	-0.00	0.04	0.02	0.01	0.00	-0.00	0.04
조력시간	0.31***	0.18**	0.28***	0.34***	0.11	0.35***	0.20**	0.31***	0.37***	0.14*
부인성역할	-0.08	-0.15	0.12	-0.03	-0.07	0.85*	0.35	0.91*	0.69	0.54
남편성역할	-0.10	-0.05	-0.05	-0.03	-0.12	0.47	0.25	0.44	0.41	0.24
부인*남편성역할						-1.33*	-0.71	-1.12	-1.02	-0.86
F값	***	2.29***	3.16***	3.39***	4.00***	4.08***	2.21	3.20***	3.36 ***	3.86***
설명력		10.91	14.47	15.36	17.36	19.20	11.40	15.72	16.39	18.36

* p<.05, ** p<.01, *** p<.001

〈표 5〉 부부 성역할태도 유형에 따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 분(사례수)

부인	남편	
	근대적	전통적
전통적	-	109.60(84)
근대적	154.70(33)	141.11(104)

154.70분(2시간 35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부인이 근대적이고, 남편은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경우는 141.11분(2시간 21분)으로 다음으로 길었다. 부인이 전통적이고 남편도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경우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109.60분(1시간 50분)으로 가장 짧았다.

부부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 패턴을 살펴보면(표 5),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남편보다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13.59분 더 길었다. 이에 비해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인 경우보다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인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31.51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즉 남편의 전통적 - 근대적 성역할태도에 따른 남

편의 가사노동시간 차이보다는 부인의 전통적 - 근대적 성역할태도에 따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성역할태도보다는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를 증가시키는데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성역할태도 이외에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부인의 연령, 남편의 교육수준, 부인의 취업, 조력시간 등이었다. 영역별로는 의·식·주생활 영역이 부인취업여부, 부인소득, 조력시간에 영향을 받으며 구매 및 경영은 부인연령, 남편교육, 조력시간에 영향을 받았고, 자동차 및 정원관리는 조력시간에, 자녀돌보기는 자녀수, 부인연령, 남편교육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볼 때 의·식·주생활영역은 부인의 인적자원을 나타내는 변인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구매 및 경영영역에서는 남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인적자원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력시간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영향력의 방향이 기대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이는 조력자에 임금을 지불하는 파출부나 가정부 이외에 시댁이나 친정가족들까지를 포함하여 조사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4. 부부의 성역할태도 상호작용과 가사노동 공평성 및 전체노동에 대한 공평성 인지

부부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이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 공평성 그리고 시장노동까지를 포함한 부부의 전체노동에 대한 공평성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역시 2단계의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부인의 취업여부와 부인의 근무시간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어 부인의 근무시간은 중회귀분석식에서 제외시켰다. 부인의 가사노동 공평성 및 전체노동 공평성 인지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1단계의 회귀식과 2단계의 회귀식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2단계 회귀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인의 성역할 태도와 남편의 성역할태도 그리고 부부 성역할태도 상호작용 변인은 부인의 가

사노동 공평성 인지나 전체노동 공평성 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 부인들은 부부가 어떠한 성역할태도를 지닌 경우일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가사노동분담 상태에 대한 공평성 인지를 하는데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상대적 박탈이론에 비추어 본다면, 부부의 성역할태도는 자신의 과거경험, 자신과 비슷한 부인들, 자신을 비교하는 준거집단 중 어느 누구의 가사노동분담 상태를 비교하여 부인의 노동 불공평성을 인지토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밖의 영향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인의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와 전체노동 공평성 인지 모두에서 부인의 취업여부가 부적 영향력을 가지며, 부인의 근로소득이 정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들은 자신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자신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부인 자신과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이나 시장노동까지를 고려한 전체노동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부인의 가사노동 공평성 및 전체노동 공평성 인지

독립변인	가사노동	전체노동	가사노동	전체노동
	β	β	β	β
자녀수	-0.01	-0.09	-0.04	-0.12
부인연령	0.06	0.04	0.11	0.09
부인교육	-0.15	-0.16	-0.17	-0.18
남편교육	0.02	-0.04	0.02	-0.00
부인취업	-0.39***	-0.53***	-0.34***	-0.48***
남편직업	0.01	-0.04	0.01	-0.04
부인소득	0.26*	0.38***	0.28*	0.38***
남편소득	-0.00	0.06	0.01	0.06
남편근무	-0.04	-0.02	-0.04	-0.02
조력시간	0.00	-0.02	0.05	-0.02
부인성역할	-0.03	-0.03	-0.24	-0.67
남편성역할	-0.15	-0.12	-0.27	-0.50
부인성역할*남편성역할			0.28	0.91
F값	1.95*	2.68**	1.65	2.85***
설명력	10.95	14.48	8.78	14.25

* $p < .05$, ** $p < .01$, *** $p < .001$

남편의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 및 전체노동 공평성 인지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부부 각자의 성역할태도만을 포함시킨 1단계 회귀식에서는 부인의 성역할과 남편의 성역할 모두 가사노동 공평성이나 전체노동 공평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변인을 포함시킨 2단계 회귀식에서는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남편의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남편은 불균형적인 부부의 가사노동분담 상태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노동 공평성 인지에서는 성역할태도의 어느 변인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 회귀식에서도 부부의 성역할태도 상호작용 변인이 포함되므로써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 성역할태도 상호작용 변인이 남편의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에서 고려되어야 할 변인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밖의 영향변인을 살펴보면 남편의 가사노동 공

평성 인지는 부인취업여부와 조력시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조력시간이 길수록 남편은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을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부부의 전체노동에 대한 남편의 공평성 인지는 남편 자신의 근무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들은 자신의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부의 전체적인 노동분담을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좀 더 구체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부부의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이나 부부의 가사노동 공평성 및 전체노동 공평성 인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부부의 성역할태도 유형에서 볼 때, 부인은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지니

<표 7>남편의 가사노동 공평성 및 전체노동 공평성 인지

독립변인	가사노동	전체노동	가사노동	전체노동
	β	β	β	β
자녀수	-0.03	0.07	-0.02	0.05
부인연령	0.06	0.03	0.03	0.04
부인교육	-0.16	0.04	-0.14	0.04
남편교육	0.05	-0.07	0.01	-0.67
부인취업	-0.20	-0.12	-0.21*	-0.10
남편직업	0.12	0.01	0.12	0.01
부인소득	0.06	-0.08	0.07	-0.08
남편소득	0.08	0.13	0.09	0.14
남편근무	0.11	0.15*	0.11	0.15*
조력시간	0.07	0.00	0.22**	0.08
부인성역할	-0.13	-0.12	0.71	0.07
남편성역할	0.08	0.11	0.60*	0.23
부인성역할*남편성역할			-1.21	-0.28
F값	2.20**	1.70	2.62**	1.82*
설명력	12.16	9.69	13.24	9.59

* p<.05, ** p<.01, *** p<.001

며, 남편은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남성은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데 비해 여성은 근대적 가치관을 지향하고 있어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을 클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둘째, 부부 모두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역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들은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차이로 인한 문제경험은 적을 수 있지만 좀 더 균형적인 가정내 가사노동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상태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태도와 관계없이 부인들은 가사노동 수행의 일차적인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로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부부 각자의 성역할태도보다는 부부의 성역할태도 상호작용 유형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어떤 유형인가에 영향을 받으며, 구체적으로는 부부 모두 근대적인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길어졌다. 부부 사이의 보다 균형적인 가사노동 분담을 위해서는 부인과 남편 모두의 성역할태도를 근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 자신의 성역할태도보다는 부인의 성역할태도에 따라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남편 자신의 성역할태도 보다는 부인의 성역할태도에 크게 영향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또한 부인들이 부부의 역할관계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성의식을 갖는 것이 가사노동 분담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여섯째, 부인의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나 전체노동 공평성 인지는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태도가 노동분담상태를 여과 또는 중재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보다는 부인이 취업으로 인해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과중한 노동부담을 갖는 실제적인 상황

이 공평성 인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남편의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는 부부의 성역할태도 상호작용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항이 중회귀 분석식에 포함되므로써 유의하지 않았던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남편의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에 있어서도 부부의 성역할태도 상호작용이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구체적인 영향력은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부인이 오랜 시간 가사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들로 하여금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불균형 상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남편들이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갖도록 교육적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부부간의 불균형적인 가사노동분담을 규정짓는 결정적인 특징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부인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은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불만족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나 남편의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에 있어 부인과 남편의 성역할태도 상호작용은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정내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을 균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나 교육적 시도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공평성을 다루는 부분에서 가사노동에 자녀돌보기 시간을 포함시켰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사노동시간은 부인과 남편 모두 생산적인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인의 가사노동 불공평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영역의 가사노동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의 연구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사노동을 기타의 가사노동과 분리하여 가사노동 영역별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권혜연(1996),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영향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 정영금(1993), “재산형성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권 1호, pp. 13-24.
- 3) 조미환(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최수선(1995),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허경옥(1997), “기혼여성의 취업이 부부의 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논문집 36집, 성신여자대학교, pp. 333-358.
- 6) 홍윤정(1996),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Baxter, J. (1992), “Power, Attitudes and Time: The Domestic Division of Labour”,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xxiii, 165-182.
- 8) Benin, Mary Holland and Joan Agostinelli(1988), “Husbands’ and Wives’ Satisfaction with the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pp. 349-61.
- 9) Bielby, William T., and Denise D. Bielby(1992), “I Will Follow Him: Family Ties, Gender-Role Beliefs and Reluctance to Relocate for a Better Job”,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 pp. 124-167.
- 10) Blair, S. F. and Johnson, M. P.(1992), Wives’ Perceptions of Fairness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570-581.
- 11) Crosby, Faye J.(1976), “A Model of Egotistical Relative Deprivation”, *Psychological Review*, 83, pp. 85-113.
- 12) Crosby, Faye J.(1982), *Relative Deprivation and Working Women*, Oxford University Press.
- 13) DeMaris, A. and Monica A. Longmore(1996), “Ideology, Power, and Equity: Testing competing Explanations for the Perception of Fairness in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March, V. 74, N. 3, pp. 1043-1072.
- 14) Greenstein, T. N.(1996a), “Gender Ideology and Perceptions of the Fairnes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Effects on Marital Quality”, *Social Forces*, March, V.74, N.3, pp.1029-1043.
- 15) _____(1996b),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Interactive Effects of Wives’ and Husbands’ Gender Ideolo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August, pp.585-595.
- 16) Hardesty, C., & Bokemeier, J. (1989), “Finding Time and Making Do : Distribution of Household Labor in Nonmetropolitan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pp. 253-267.
- 17) Hochschild A.(1989a), *The Economy of Gratitude*, in D.D. Franks & E. D. McCarthy(Eds.), *The Sociology of Emotions: Original Essays and Research Papers*, (pp. 95-113), Greenwich, CT: JAI Press.
- 18) _____(1989b) *The Second Shift*. New York:Viking.
- 19) Huber, Joan and Glenna Spitze(1983), *Sex Stratification: Children, Housework, and Jobs*, Academic Press.
- 20) John, Daphne, Beth Anne Shelton, and Kristen Luschen(1995), “Race, Ethnicity, Gender, and Perceptions of Fair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16, pp. 357-79.
- 21) Kanter, Rosabeth Moss(1977), *Men and Women of the Corporation*, Basic Books.
- 22) McCarthy(eds), *The Sociology of Emotions: Original Essays and Research Papers*. Greenwich, CT: JAI press.
- 23) Major, Brenda(1987), *Gender, Justice, and the Psychology of Entitlement*. in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 (ed)

- Phillip Shaver and Clyde Hendrick, Sage, pp 124-48.
- 24) Perry-Jenkins, J., & Crouter, A. C.(1990), "Men's Provider Role Attitudes: Implications for Household Work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11, pp. 136-156.
- 25) Pina, Darlene L., and Vern L. Bengtson(1993),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Wives' Happiness: Ideology, Employment, and Perceptions of Support,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pp. 901-12.
- 26) Presser, Harriet B(1994), "Employment Schedules among Dual-Earner Spouses and the Division of Labor by Gende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pp. 348-364.
- 27) Sanchez, Laura(1994), "Gender, Labor Allocations and the Psychology of Entitlement in the Home", *Social Forces*, 73, pp. 533-53.
- 28) Sanchez, Laura & Emily W. Kane(1996), "Women's and Men's Constructions of Perceptions of Housework Fair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17, No.3, May, pp.358-387.
- 29) South, Scott J., and Glenna Spitze(1994), "Housework in Marital and Nonmarital Househo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pp.327-47.